



23- 6호

놀이를 통해 꿈과 사랑이 성장하는 유치원

소식을 전해요



☎ 841-8270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유아들이 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 이해 및 인식(인권)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세요. 친구와 가족, 선생님, 동네 사람들....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곱슬머리이고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축구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림을 유독 잘 그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특별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마다 특별하지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 나에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 것을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갑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차이'가 곧 그 사람의 특별한 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아요.

서로 다양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다양한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서로가 가진 다른 점들을 느끼고 인정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키워집니다. 우리 유치원 친구들이 다양한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서로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2023.4.20.

이리동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장애인의 날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한 추천 도서

1. 검은색만 칠하는 아이 / 지은이 : 김현태 글, 박재현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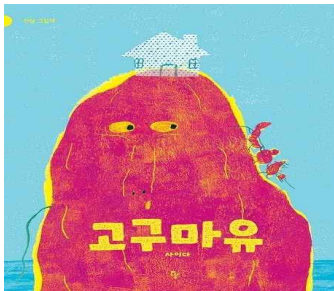
미술 시간에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검은색 크레파스로 칠하기만 하는 소년과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꿈꿔야 하지만 어른들만큼이나 바쁜 일상 속에 갇혀버린 아이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주면서 위안을 건넵니다. 아울러 자유롭게 상상의 날개를 펴고 날마다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이끍니다.

2. 조금 특별한 내 친구 / 지은이 : 진보경



라희와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다름에 대한 이야기. '표현은 조금 달라도, 마음은 같은 우리는 특별한 친구!' 아이들을 평균이라는 잣대로 나누는 건 어른들의 부끄러운 편견이라 말하는 진보경 작가의 그림책입니다. 유치원 같은 반 친구인 라희와 하나를 통해 아이들 제각각이 가진 다른 모습을 전합니다.

3. 고구마유 / 지은이 : 사이다



생김새가 달라도 우리 모두 고구마구마!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고구마들의 모습을 통해 작가 특유의 유머로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 명의 사람이 있으면 백 명 모두 생김새가 저마다 다르고, 능력이 저마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협동하면, 이 세상에 이뤄내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교육부 배포 장애이해교육 콘텐츠>



'다르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



'같은 점을 찾아 봐요!'



'우리는 모두 친구!'

